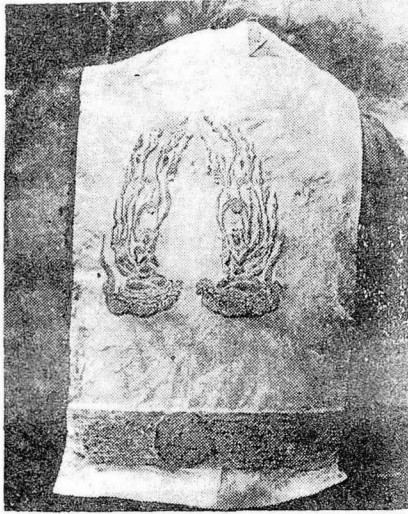


新羅 實相寺 銅鐘 調査略報

黃 壽 永

一

지남 三月二十九日 全北 南原郡 山内面 實相寺 境内 藥師殿 東南地點에서 同寺 創建當初의 鑄成으로 推定되는 大鐘이 出土되었다. 이것은 一九四八年 江原道 襄陽郡 西面 米川里 禪林院址에서 貞元二十年 銘 靑銅 梵鐘이 出土된 以後 두번째의 일로서 이 事實이 報道되자 關係者를 緊張케 하였다. 그리하여 筆者는 三月三十一日 洪思俊 芮庸海 兩氏와 같이 現地에 이르러 이 地 表에 引揚된 實物을 調査하였던 바 아깝게도 完形이 아니라 飛天과 撞座 以下의 胴體部만 破鐘이었다. 上記 貞元銘鐘이 六・二五戰亂으로 破壞되었기 때문에 그 損失을 補充할 新例를 期待하였던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나 破鐘이기 는 하나 現存部分만으로서 도덕적이 原形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飛天을 비롯 帶帶 彫紋이 잘 保存



된 것은 調査者를 驚 喜케 하였다. 이 破 鐘은 發見當日 이 地 域一帶에서 古鐵을 蒐集하고 있던 申舜 植(三一才 京畿道 楊州郡 漢金面 金谷 里 東幕洞 六二〇) 과 盧炳烈(二七才 서울市 東大門區 踏 十里 一八四番地) (一 통十一반 김현진方)

兩氏에 의하여 探知器의 使用으로 發見되어서 곧 發掘에 着手되었으나 翌三十日은 終日 降雨로 中斷되고 三十一日 地 表에 引揚되었다는 바 不 過 地 表 一尺下에 同寺 藥師殿을 向하여 西北向으로 鐘口를 두고 橫臥 되어 있었다 한다. 이 地點은 同寺 東方 建物址 西基壇列에서 約二m 떨어진 곳으로 瓦片以外에 다른 伴出物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二

上記한 바와 같이 現存部는 胴體뿐이나 切斷된 上緣은 高低가 均一하 지 못하여 完存하는 飛天部가 가장 높아서 九九cm이며 最底部는 이 飛天 紋과 對稱되는 곳으로 高二八cm에 불과하다. 口徑은 鐘口가 若干 歪曲 되어서 九六cm—九九・五cm이며 厚는 下緣에서 七・七—九・二cm 最上端에서 四cm에 達하고 있는 바 이 같은 不均値는 심한 火傷에 의한 것으 로 推定되었다. 下外徑이 九九・五cm임은 現存하는 五臺山 上院寺鐘과 거의 同一하다.

下帶는 넓어서 幅二・五—一三cm인 바 他例에 比하여 特異한 것은 交代로 各二座씩 配置된 飛天과 撞座 直下部徑에 直徑 十三cm의 小圓形紋을 配置한 것이다. 下帶에는 上下의 連珠紋帶사이 에 纖麗한 唐草文을 陽 刻하였다. 撞座는 左右가 同大(徑 二二cm)인 바 中央에 넓은 子房을 두 고 그 둘레에 八瓣單蓮外周에 忍冬蓮花紋帶를 彫刻한 것 또한 同一하다. 飛天紋은 撞座와 交代로 거의 同隔同高(下帶上緣에서 三五cm)로 配置 되었는데 現在 一處만이 完全하고 他一은 下緣의 雲紋을 남기고 있을 뿐 이다. 이 飛天은 이 破鐘에서 가장 優秀한 것으로서 雙飛天의 雲上奏樂 坐像인데 右像은 笙을, 左像은 橫笛을 들고 蓮花座 위에 相對하여 天衣 를 날리고 있다. 飛天의 相好나 寶冠 瓔珞 등 纖細한 彫刻이 當代의 樣 式을 傳하고 있는데 크기는 高 四四cm 幅 四〇cm로서 上記한 貞元二十 年銘鐘의 것과 同式이다. 그리고 이 飛天紋 左上部에는 乳廓一端이 僅存 하고 있어 그 位置와 唐草紋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多幸이다.

三

이와 같이 鐘體의 下半만이 남아 原形을 推定케 하나 乳廓以上은 알 수 가 없다. 發見 以後 附近을 探索하였으나 찾지 못한 것은 일찌기 火災로

埋沒될 때 全破 滅失된 것으로 보인다. 實相寺는 新羅 禪門九山の 하나로서 興德王三年(八二八) 洪陟國師의 創建이라고 傳하고 있어 이 破鐘의 年代를 九世紀初葉으로 比定하여 實相寺創建에 따르는 鑄成으로 보거나 한다. 그 後 戰亂 특히 麗末이나 壬亂 또는 土豪의 相克에 따르는 被禍事實 등에 비추어 일찌기 鐘閣과 더불어 燒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下半身이 남아서 地下에 埋沒된 後 오랜 空閒期에 그 存在를 알았던 듯하다. 鐘體의 歪曲 특히 下帶에 附着된 溶屑에서 보아 高火度에 의한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部分이나마 埋藏되어서 오늘 出世한 것은 또한 奇妙한 因緣으로 新羅鐘研究의 貴重資料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各部 紋樣의 優美流麗함은 특히 當代 工藝의 發達相을 오늘에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破鐘이나 크기에 있어 五臺山 上院寺鐘과 比肩함은 그 大鐘임을 알 수 있는 바 現存部分에서 銘文을 찾지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洪川津里 石佛과 陽德院 三層石塔

鄭 永 鎬

一、邑內津里石佛立像

洪川邑에서 春川行 街道邊인 嚴俊達氏宅(津里七六番地) 後庭에 石佛一軀가 奉安되어 있다. 氏가 十四年前이 家屋에 移舍을 때는 露天에 放置되었었는데 十年前에 板子로 現在의 堂宇를 짓고 佛像을 安置한 뒤로 洞民들을 비롯 各處에서 많은 祈願信徒들이 모이고 있다. 傳聞한 바에 의하면 六·二五대 佛頭가 缺失된 것인데 某美軍이 移搬하여 現頭部는 佛堂을 세울 때의 後補物이라 한다. 목에는 三道가 돌려 있고 法衣는 通肩이며 胸前에 衣帶가 뚜렷하다. 臍部에서 흘러내린 衣文은 兩脚에서 長弧를 그렸는데 그 불륨이 强하다. 背面에는 衣文等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兩側에 鳥羽形으로 펼쳐진 衣文은 衣端이 兩足과 함께 埋沒되어 調

査하지 못한은 遺德이다. 양쪽 팔과 손목에는 팔찌(腕釧)가 굵게 彫刻되었고 右手는 胸前에 틀어 外掌하였으며 左手는 臍前인데 손위에 寶珠를 놓고 있다. 直立의 姿勢로 現在는 西向이나 原來의 向은 알지 없다. 어깨나 가슴이 堂堂하고 全體의 均衡이 잡혔으나 各部、彫刻手法이 鈍重한 點과 衣文 鈎飾 등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葉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 (cm) 現高 二二〇 肩幅 七四 胴體厚 四〇 頭高 五二 胸幅 五〇이다.

二、陽德院 三層石塔

南面 陽德院(里) 現 天竺寺入口 小路邊 耕作地에 完形의 三層石塔 一基가 遺存한다. 天竺寺住持 襄聖鎬氏(六四才)의 말에 의하면 倒壞된 것을 近年에 再建한 것이라 하는데 그 때 문에 各層屋蓋의 轉角과 塔材에 磨損이 있다. 自然岩盤(一三〇cm x 一七〇cm 厚三五cm) 위에 地臺石(一邊長八七cm 厚八三cm)이 있고 그 上面에 받침一段을 刻出하여 塔을 받고 있다. 單層基壇인데 各面에 隅柱가 있고 甲石下面에는 內部 깊숙히 一段의 刻痕과 같은 副椽이 表現되었으며 上面에는 角形의 낮은 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다. 各層 塔身에는 兩隅柱가 있는데 初層만은 一石이나 二、三層의 塔身은 그 밑의 屋蓋와 一石으로 되어 있고 露盤과 覆鉢도 三層屋蓋와 一石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各屋蓋上面의 屋身받침은 省略되었나. 各屋蓋받침은 三段씩이며 落水面의 傾斜는 急한 麗代의 典型式을 이루고 있다. 相輪部는 露盤까지로 上面에는 徑六一九cm의 擦柱孔이 있다. 이러한 屋蓋와 塔身이 一石인 樣式의 例는 春川의 要仙堂里七層石塔이나 ① 春城郡 倉村里 三層石塔② 등에서 볼 수 있는 바로서 高麗中葉石塔形式의 一例를 여기에 또하나 찾은 셈이 되겠다. 原位置로 推定되며 現在 周圍耕作地에서는 많은 瓦片을 蒐集할 수 있다. 實測値(cm)는

- 現高 一〇〇 基壇高 四四
- 甲石一邊長 七八 一層身高 一三三
- 甲石厚 八 二〃 六·五
- 三〃 五·五
- 一層塔身幅 三三 一層屋蓋長 六三
- 二〃 三三·五 二〃 五七